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 · 제례의식 · 제례수행

Urban Housewives' Value Orientation, Sense of Ancestral Service and Behavior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강 사 김 연 화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Jung Woo, Lee

Lecturer : Youn Hwa,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housewives' sense of ancestral service and behavior and to verify that how housewives' value orientation affects the sense of ancestral service and behavior.

The data are collected from 393 housewives in urban. The statistics used for the analysis are Cronbach's α ,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among the variables, degree of fate-control orientation is the most, on the contrary, material orientation is the lowest.

Second, value orientation variables that affect sense and behavior of ancestral service are material orientation and gender equilibrium orientation.

Third, the behavior of ancestral service is more traditional than sense of ancestral service.

Fourth, cause-and-effect variable which affect behavior of ancestral service are education level, religion(Buddhism, Catholicism), employment status, number of children, health, daughter in-law's ranking, sense of ancestral service, and value orientation, which affect the direct or direct and indirectly. Especially sense of

ancestral service variable is the most important mediation one.

We expect further studies on the sense of ancestral service and behavior with precise scale and sampling.

I. 서론

오늘날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사회구조와 인간의 행동양식 및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전통인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과 표현양식도 계속 변용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儒敎的 價値觀과 오늘날의 物質主義的 價値觀이 공존함에 따라 현대인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 작용하면서 가족과 가정생활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생활 양식 및 외래 요소 유입이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지역간의 격차를 보이면서 서로 조화되지 않은 채로 혼재되거나, 과거의 생활양식과 외래문화적 요소들이 일시적인 타협을 통한 적응형태로 관행화 되면서, 이중적인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탈된 적용 기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도기적인 문화 혼란, 적합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통합의 위기 등이 그것이다(박혜인, 1999).

근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신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인 구세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일부 물려받았지만 새로운 사회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보다 서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존질서를 배척하려는 성향이 있다. 반면에 부모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며, 완고하고 개성이 뚜렷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절대시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경향을 나타냄으로서 세대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부연하면 젊은 세대는 기존의 사회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이런 의문은 점차 확산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한 지배적인 가치체계는 변화를 겪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된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박재간, 1995; 한림과학원 편,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간에는 유전학적·사회학적인 유사성이 있어 생리적·사회적 지속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고 사회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구세대의 傳統은 지속(한림과학원 편, 1995)되는데, 이는 한국인이 재발견해야 할 뿌리로 재인식되기도 하지만 한편 가치규범의 붕괴와 아울러 행동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이길표, 1997). 이러한 점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의례에서 뚜렷하며 生活文化인 祭禮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된다.

祭禮는 다하지 못한 孝의 표시이며 우리 조상들이 발전시킨 정신문화를 통해 조상을 공경하기 위한 의식으로, 조상을 생시처럼 잘 모시고자 하는 人倫的인 禮인 동시에 가족들이 잘 받들어 복을 받고자 하는 공리적인 면도 강하다. 또한 제사를 매개로 자손이나 친척들이 모여 가족공동체의 삶을 영유하는 기초가 되고 조상을 기리고 어버이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장철수, 1995; 이정우 외, 1998)가 되기도 한다.

근래, 한국가정에서의 제례는 종교 및 제주의 가치관에 따라 간편화를 추구하는 가정들도 그 수를 더해가고 있으나 아직 그 맥을 강하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약식절차에 거부감을 느끼고 전통적인 절차와 형식을 강하게 고집하는 가정들도 여전히 많아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冠婚喪祭에 관한 연구를 보더라도 세대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제례(손승영, 1995)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례에 관련된 연구는 문화인류학, 한국사, 사회학, 신학, 종교학, 그리고 가정학 등에서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 연구 중 일부는 조상숭배를 종교의 한 대상으로 보는 연구 및 친족 등을 결부시킨 연구들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가치관 연구에

서는 제례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헌고찰을 통한 조상숭배사상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가정관리학에서는 제례에 대한 실태조사, 제례의식과 제례행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제례의식 · 행동 및 만족도를 연결시킨 연구는 한 두 편 있을 뿐이며, 더욱이 제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의 가치 · 가치지향성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로부터 가정주부는 가정의례를 준비하는 주관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근래 주부의 취업 증가, 가치관의 변화 및 종교 등에 따라 도시 주부들의 제례에 대한 의식 및 실제수행은 상당히 변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정생활문화의 전수자인 주부의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 · 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함은 매우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들의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 및 수행정도를 연계 분석하여 전통생활문화인 제례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제례규범을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 · 가치지향성

가치나 가치지향은 여러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그 적용범위도 넓다. 이는 가치, 가치관, 가치의식, 가치지향이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가치는 사람이 사물에 대해 '좋다-나쁘다', '옳다-그르다', '바람직하다-바람직스럽지 않다'와 같은 것을 판단하는 일종의 심리적 과정이다.

Kluckhohn(1951) 등은 가치란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특징 또는 집단의 특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위, 수단, 행동결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Williams(1970)는 가치는 좋다-나쁘다,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선호적 관심(preferential interests)을 가지는 일정한 상

황, 사건, 또는 사물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간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의미로 느끼는 것, 숭배하고 싶은 것 등을 포함하는 모든 관심의 대상이며 인간행동을 조직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의 깊은 정서적인 성질을 띤 규범 원리라 하였고, Rokeach(1973)는 가치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믿는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했다.

결국, 가치는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방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동기의 형태로서 개인 혹은 집단에 바람직하다고 내면화되어 있는 평가적 현상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형태를 특징짓는 규범적 원리를 의미한다(이상주, 1990). 또한 가치는 관리행동의 중요한 동기요소로서 문화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때로는 문화의 규범을 나타내기도 하며(홍은실 · 황덕순, 1997), 이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상황과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Chanberlain & Kelly, 1975; 장혜연, 1997)이다. 따라서 가치는 인간행동의 이면에 작용하는 일종의 철학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은 조직되고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가치지향성(Value-Orientation)이란 무의식적으로 깊이 침투되어 있어서 개인의 행동양식과 모든 활동영역에서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Kluckhohn, 1951), 바람직한 것에 대한 조직화된 개념(이상주, 1990)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많은 경험에 의해 체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과 태도에 관련된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Melson, 1980). 또한 가치지향은 가치와 실제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연계성 있는 명제라고(Kluckhohn, 1967)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인간본성에 대한 지향성(Human Nature Orientation), 인간지향성(Man Nature Orientation), 시간지향성(Time Orientation), 활동지향성(Activity Orientation), 그리고 관계지향성(Relationship Nature Orientation)등 5가지는 기본적인 가치지향이라 하였다(Melson, 1980). 즉, 가치지향은 자연,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 및 인간상호작용을 관련시킬 때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홍승직, 1971) 이라고 하였다. 결국 가치지향

성과 행동과의 관계는 상호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가치지향이 행동의 특정한 유형보다 보편적이며 지속적인 측면이 있기에 인간의 행동과 관련되는 개념은 가치관보다 가치지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이명숙, 1995; 이정우·박은아, 1995)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정관리에서 가치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관리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는데, Deacon과 Firebaugh(1981)는 행동에 선행되는 투입요소로 가치를 들고, 가치는 인간행동의 이면에 작용하여 인간의 판단, 결정 및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관리자가 어떤 가치지향성을 지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는 홍승직, 김태길, 정범모, 고범서, 이상주, 임희섭 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적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중심이었다. 즉, 고범서(1992)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 중에서 철저한 물질주의적 이기주의가 한국인 절대 다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가족 전통적 가치관과 민주주의 의식의 비교를 통하여, 관념은 전통 속에 머물면서 행동은 개인주의의 새로운 사조에 따르려는 이중적인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태환의 연구(1987)에서도 우리의 전통적 가치지향성인 보수주의, 집단주의, 미래지향성, 남녀불평등지향성은 어느 정도 존속하면서도 혁신주의, 개인지향성, 현재지향성, 남녀평등성이 차츰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상주(1994)는 우리의 오래된 자연에 대한 운명적 가치관은 많이 극복되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나 혈연, 지연, 학연,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인정주의 및 아직 개인적 운명주의가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았다.

근래 점차 가정관리학 분야에서도 가치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가정관리 투입요소 중 동기요소로서의 가치 또는 가치지향에 관한 연구들(박미금·장명숙, 1985; 김연화·이정우, 1987; 임정빈·문숙재, 1988; 안옥희·박인전, 1993; 이정우·오연옥, 1995; 이정우, 이명숙, 1995; 조미환·

임정빈, 1991; 현민정, 1990; 홍은실, 1990, 1996; 홍은실·황덕순, 1995; 이정우·박은아, 1995; 이정우·이정숙·박미금, 1998)이 대부분이다.

가치·가치지향성에 관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우(1979)의 연구에서 도시주부는 가정생활에 대해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가족관계에서만은 가족주의적 전통이 쉽게 서구화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들은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우위에 두고 있으며, 학력이 낮은 주부는 명예를 더 중시하는 반면에 학력이 높은 주부는 금전적 가치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문숙재(1981)도 가정관리를 하는 주부의 생활자세는 물질적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지향 중에서 그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한편, 박미금(1984)의 연구에서는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면이 우세하였고, 임정빈(1987)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가치성향은 인본주의, 집합주의 가치성향이 물질주의, 개인주의 가치성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미환(1990), 이무영(1994), 이정우·박은아(1995)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가치성향은 통제론적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성향·성평등지향성·현재지향성은 중간점 이하이고, 운명통제지향성·혁신지향성·개인지향성은 중간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이정우·이정숙·박미금(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환경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명통제지향성·개인지향성·물질지향성·평등지향성·현재지향성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지향성·운명통제지향성·개인지향성은 중간점 이상이고 물질지향성·평등지향성·현재지향성은 중간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가치지향성은 인간의 선택, 판단 결정 및 행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관리자의 가치지향에 따라 제례의식과 수행이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이상의 논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바람직한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여 전통적인 가치

지향과 갈등관계에 있는 근대적인 가치지향성 즉 물질지향성 · 운명통제지향성 · 성평등지향성 및 혁신지향성 등을 중심으로 도시주부들의 가치지향의 일반적 경향성은 어떠하며 이것이 제례의식과 수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제례의식 · 수행

제례(祭禮)는 제사(祭祀)지내는 여러 가지 예법으로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儀禮(김명자, 1983)로 인류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동서고금 어느 사회에서나 형태만 다를 뿐 제사는 행해져 왔는데 미개 사회에서는 주술의 형태로 문명사회에서는 종교로 저마다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옛날에는 천재지변, 질병,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고 신과 인간의 세계를 매개시켜주던 종교행위였다. 근세에 와서는 우리의 제례는 유교의 영향, 정치 사회 또는 생태적인 요인, 무속 가신 신앙 등 민간신앙, 불교와 밀착하여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표시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제례¹⁾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조상신(祖上神)에 대한, 즉 혈연으로 이어진 조상에 대한 의례를 뜻(임돈희, 1994)하는데 중국의 성리학의 禮制와 朱子家禮의 영향을 받아 조상숭배행태가 혈연의식을 관념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사회에 변화를 가져왔고 제례는 禮學의 발전에 바탕이 되었다(한국정신문화원, 1997). 본 고에서는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의례절차에 대한 것으로 家禮에서 말하는 冠婚喪祭-四禮-즉 제례를 의미한다.(김득중, 1998).

근래에는 산업화 도시화로 대가족제도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족주의 존속을 위해 존재했던 전통의례가 상실되어 가는 한편 세속주의 합리주의 영향으로 교회, 절 등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고 주문 차례상, 제기판매 등의 상업화로 과소비, 의례문화의 탈규범화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제례는 대부분 유교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정의례 준칙 등으로 많이 간소화되었으며, 가족원의 종교, 가치 · 풍습에 따라 가정마다 각기 다르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건전한 제례문화운동의 모색이 필요하다.

조상제례에는 종류가 다양하나 오늘날에는 기제(忌祭), 절사(節祀), 시제(時祭)로 하고 있으며 위령제(慰靈祭), 추모제(追慕祭) 등이 행해지고 있다.

기제란 고인이 돌아가신 날, 곧 기일(忌日)의 子時(12시경~1시경)에 지내는 제사이다. 봉사대수(奉祀代數)는 조선 후기이후 4대 봉사(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를 기제로 모시어 종래에는 4대 봉사의 원리가 있었으나 현대에는 기제의 대상이 반드시 4대까지 여야 한다는 의식은 많이 변모되고 있는 듯하다(이정우 · 김명나, 1993). 제사시간은 기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별세한 날 子時(12시경~1시경)에 지냈으나 현대에는 몇몇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돌아가신 날 일몰후의 저녁 때 또는 적당한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적 차이가 있는 몇몇 연구를 비교해 보면 기제사의 경우, 임옥재(1981)의 연구결과 제례시간이 새벽식(새벽 0시부터 1시 사이)이 74%, 개량식(적당한 시간을 택함)이 26%로 전체의 2/3정도가 전통식이었고, 서울은 개량식이 34.8%로 경기도의 19%보다 비교적 개량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수정(1988)의 연구에서는 사망전날 해진 뒤(33.9%),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21.8%), 사망당일 이른 새벽(20.6%), 사망당일 해진 뒤(19.4%)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김인옥(1997)의 연구결과 사망전날 저녁때 34.7, 사망당일 저녁 21.9%로 나타나 56.6%가 자정전후 보다 일찍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제례시간에 대한 태도가 제주와 그 가족의 편의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1) 宋代의 특수한 역사상황에서 형성된 주자가례는 중국내에서도 내외적인 영향으로 변용되었고, 우리의 제례는 주자가례의 영향으로 중국화된 조선왕조의 家禮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 맞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례는 먼저 士大夫 계층에서 수행되었으나 조선 중기이후 四禮便覽, 家禮輯覽 등의 민간 예절서가 간행된 후 일반서민에게까지 보급되었다(황원구, 1981; 고영진,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경사회와는 달리 바쁜 도시 생활, 직장생활로 인해 퇴근 후의 시간, 생활에 편리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변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제사장소는 제주의 가정에서 지내고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 직계자손 중심으로 가까운 친척 등이 참가하고 있다.

차례(茶禮)는 절사(節祀)라고도 하며 명절날 지내는 제사로서 예전에는 1년에 4회, 설날, 한식, 추석, 동지 등에 거행하였으나 근년에는 설날과 추석, 한식 등 보통 1년에 2-3회 지내고 있다. 기제와는 달리 차례는 오전에 지내며 기제와 같은 대상 또는 모든 직계조상을 대상으로 하며, 절차는 기제와 같으나 헌작(술)이나 차는 한잔씩 올리고 축문을 읽지 않으며 합문(闔門) 절차는 없다. 지방은 합사(合祀)한다. 음식은 四禮便覽에는 절사는 계절음식을 사용하라고 명시하였는데, 요즘 연시제인 초하루에는 밥 대신 떡국으로, 추석에는 햅쌀밥이나 송편으로 차례를 지낸다.

제례에 관한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1980년대 초부터 90년 초반까지 제례의식, 제례 수행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 수준의 연구(이길표, 1982, 1989; 임옥재, 1981; 한경순, 1986; 박순천, 1986; 홍현주, 1986; 박수정, 1989; 한재숙, 1989; 손유미, 1990; 김명나, 1989, 구선옥, 1992)가 이루어졌고, 그 후 제례의식, 행동과 만족에 관한 연구(이정우·김명나, 1993) 및 제례의 계속성(김시월, 1997, 1998)에 관한 연구, 전통제례에 대한 문헌고찰과 실태조사를 겸한 질적 연구(김인옥, 1997, 김인옥·이길표, 1998) 등이 이루어 졌다. 이들 선행연구들의 결과 제사봉사대수는 4대에서 2대로, 시간은 퇴근 후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복은 평소애 입는 옷을 깨끗이 하여 입으며, 지방이나 신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50%정도가 전통식을, 4촌 이내가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며, 제사장소는 방, 거실 순으로 나타났고, 제사주관자는 대부분 장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제례의식과 수행도가 높을수록 현대사회에서 제례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척과의 유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례의식 및 제례수행에 관한 연구는 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를 연구한 이길표(1989)의 연구가 있을 뿐 대개

가 주부의 연령이나 학력, 머느리순위, 종교, 취업여부,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실태수준의 연구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 제례수행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주부의 가치지향성에 따라 제례의식·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3.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치지향성과 제례를 관련 지어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부의 가치지향성, 제례의식, 제례행동 등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살펴보았다.

1) 연령: 연령에 따른 가치지향성을 살펴볼 때, 연령이 많을수록 강한 전통성을 나타내었고(이정우, 1981), 홍은실(199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근대적인 가치성향을 보이고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가치지향을 보였다. 백경미·이기춘(1993)의 연구에 의하면 30세 이하의 주부가 물질주의 성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적을수록 근대적인 가치지향을 보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성과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령에 따른 제례의식을 살펴 본 연구들(임옥재, 1981; 홍현주, 1986; 허성미, 1987; 김명나, 1989)에 의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적이었고, 이정우·오경희(1988)의 연구에서도 40대 미만의 주부가 50대 이상의 주부보다 가례관이 더욱 근대적이었다. 제례수행에는 김명나(1989), 김인옥(1997)에 의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 학력에 따른 가치성향을 살펴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으로 나타났고, 김명자(1985), 임정은(1995), 이정우·이명숙(1995)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을 나타냈으며, 이정우(1980)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배론적인 가치관이 우세하였다. 다수의 연구(이미숙, 1985; 이형실·옥선화, 1985; 임정, 1988, 이정

우·이명숙, 1995) 에서 교육수준이 성역할 평등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백경미·이기춘(1993)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제례의식은 임옥재(1981)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제례를 지내고 있으나 선행연구(이길표, 1982; 박순천, 1988), 김명나,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수행에는 여러 연구에서 학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가치지향성을 살펴볼 때, 박미금(1984), 오경희·이정우(1988)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근대적인 가치의식을 보였고, 가족수는 많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정빈, 1988). 한편 자녀수에 따른 제례의식·수행을 살펴보면, 김명나(1989)의 연구에서는 제례에 대한 태도, 행동 모두에서 자녀수가 적을수록 근대적인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가정생활 편리화, 간소화 추구경향이 가정의례수행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김명나(1993) 연구에서도 제례의식은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이 2명 이하인 집단보다 전통적이었으나, 제례수행 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종교: 종교에 따른 가치지향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 없다. 종교에 따른 제례의식은 김명나(1989)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 천주교나 무종교집단이 불교집단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이길표, 1982; 홍현주, 1986; 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손유미, 1990)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제례의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로 나타났다. 기독교, 천주교, 무종교, 불교집단의 순으로 근대적이었다. 또한 종교에 따른 제례행동은 김명나(1989)의 연구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집단이 불교와 기타 집단보다 근대적이었고, 무종교집단이 타종교집단보다 전통적이었는데, 이는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제례행동에서 전통적이라는 여러 연구결과(임옥재, 1981; 박순천, 1986; 홍현주, 1986; 박수정, 1989;

손유미, 1990)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볼 때 제례의식·수행에는 종교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5) 월평균 가계소득: 가정내 소득은 중요한 가족자원으로서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정우·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적은 집단이 물질주의성향과 운명통제지향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례의식에는 선행연구결과(옥선화, 1975; 서봉자, 1983; 홍현주, 1986; 김명나, 1989; 손유미, 1990, 이정우, 김명나, 1993; 김인옥, 1997)에 의하면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이 제례의식이 더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옥선화(1989)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재래식 제사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 근대성을 나타냈으며, 서봉자(1981)의 연구에서는 월수입이 적을수록 제사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도 수입정도가 낮은 집단이 제례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제례수행도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향으로 나타났으며(김인옥, 1997), 손유미(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전통적이었다.

6) 취업여부: 취업여부에 따른 가치지향성을 볼 때 취업주부가 더 근대적인 성역할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웅·정금자, 1983). 주부의 취업은 가치의식 및 행동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례의식에 관해서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김명나,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제례수행면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나 제례수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 제례의식과 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며느리순위: 며느리순위에 따른 가치지향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 없다.

한편 며느리 순위는 제례의식에 유의미한 변인은 아니었으나(허성미, 1987; 박수정, 1989; 김명나,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임옥재(1981)의 연구결과에서는 큰 며느리가 그 외 며느리에 비해 전통적 제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종부, 맏며느리가 그 외의 며

느리보다 제례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제례수행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건강: 건강에 따른 가치지향성, 제례의식·수행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 없으나 가정행사 중 제례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수 장보기, 제수장만, 제사지내고 뒷정리 등에 가사노동이 필요하므로 주부의 건강상태가 제례의식·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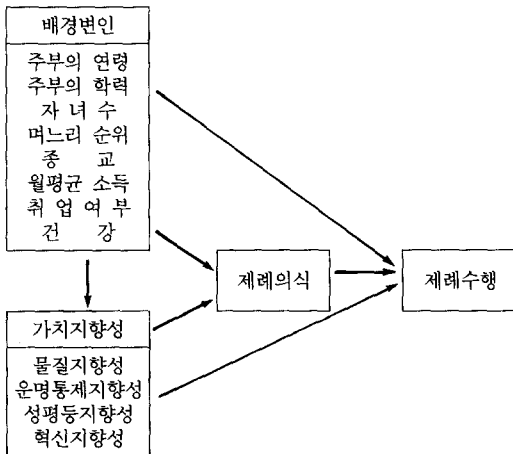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이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이 제례의식·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도시주부의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4. 도시주부의 사회인구학적변인, 제례의식 및 제례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모형



2. 용어의 정의

1) 가치지향성 :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가치지향성 가운데 주부의 물질지향성·운명통제지향성·성평등지향성·혁신지향성 등의 가치영역에서의 태도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

① 물질지향성: 인간보다 물질에 관심을 두고 성공에 대한 척도로서 실질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며 물질적 풍요·소유·소비 등에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② 운명통제적지향성: 인간이 환경이나 자연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이나 자연을 통제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③ 성평등지향성: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적인 성역할태도에 대한 주부의 태도를 의미한다.

④ 혁신지향성: 정치나 사회제도의 잘못된 점 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를 나타낸다.

2) 제례의식 : 제례에 대한 수행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근대적 또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3) 제례수행 : 제수준비, 제복, 제사시간, 제사봉사대수 등 제례를 수행할 때 실제로 어느 정도 근대적 또는 전통적으로 하는가를 의미한다.

3. 조사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가치지향성, 제례의식 및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치지향성은 선행연구(이명숙, 1995; 이정우·이정숙·박미금, 1998)를 근거로 물질지향성, 운명통제지향성, 성평등지향성, 혁신지향성의 가치영역 문항을 선정한 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표 1〉 척도 신뢰도

가치지향성	문항수	신뢰도 계수	제례	문항수	신뢰도 계수
물질지향성	3	.58	제례의식	13	.92
운명통제지향성	4	.43	제례수행	12	.87
성평등지향성	2	.67			
혁신지향성	3	.40			

것을 의미한다. 제례의식 및 제례수행은 선행연구(이길표, 1982; 박수정, 1988; 한재숙 외, 1989; 이정우, 김명나, 1993; 김인옥, 1997)를 참고로 문항을 작성한 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제례의식, 제례수행은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분당 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8년 12월초부터 1999년 2월 중순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393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치를 산출했으며, Cronbach' α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 및 제례의식 · 제례수행의 일반적 경향

1) 가치지향성의 일반적 경향

가치지향성은 〈표 3〉에서와 같이 5점 만점에 3.51점으로 운명통제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독립변인	구 분	빈 도(%)	변인	구분	빈 도
주부연령	30세 미만	47(12.2)	취업 여부	취업	149(38.7)
	30-39세	155(40.3)		비취업	236(61.3)
	40-49세	141(36.6)		계	385(100)
	50세 이상	42(10.9)		월평균 가계 소득	150만원 미만
계	385(100)	150 -250만원 미만	85(22.5)		
주부학력	고졸 이하	216(55.4)	250-350만원 미만		110(29.2)
	대중퇴 · 대졸이상	174(44.3)	350만원 이상	105(27.9)	
	계	390(100)	계	377(100)	
자녀수	1명	91(23.9)	종교	무종교	126(32.4)
	2명	213(55.9)		불교	100(25.7)
	3명 이상	77(20.2)		천주교	74(19.0)
	계	381(100)		기독교	89(22.9)
며느리 순위	만며느리 (외며느리 포함)	193(49.1)	건강	계	389(100)
	둘째 며느리 이상	200(50.9)		하	25(6.4)
	계	393(100)		중	157(40.1)
			상	210(53.6)	
			계	381(100)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로 혁신지향성이 3.50점, 성평등지향성 2.77점, 물질지향성 2.68점 순으로 나타났다. 운명통제지향성과 혁신지향성은 중간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명숙(1995), 이정우·이정숙·박미금(1998) 등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가치지향성 중 성평등지향성, 물질지향성이 중간점 이하로 낮게 나타난 결과도 이정우·이정숙·박미금(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례의식·제례수행의 일반적 경향

도시주부의 제례의식과 수행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표 3> 가치지향성·제례의식·제례수행의 일반적 경향 (N=393)

변인		평균	표준편차
가치지향성	물질지향성	2.68	.81
	운명통제지향성	3.51	.71
	성평등지향성	2.77	.92
	혁신지향성	3.50	.62
제례의식		2.70	.84
제례수행		3.33	.81

제례의식은 2.70점으로 근대적인 경향이며, 이는 박인덕(1979), 김명나(1989),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한편 제례수행은 평균 3.33점으로 다소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정(1989), 김인옥(1997)의 제례수행이 전통적이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제례의식은 근대적인 경향인데 비해 제례수행 정도는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 실제 수행보다 제례의식이 더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2.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이 가치지향성, 제례의식 및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1) 가치지향성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은 <표 4>와 같다.

물질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학력 ($\beta = -.13$)과 종교(불교) 변인($\beta = .13$)등이었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투입변수들은 분산의 6%를 설명하였다. 즉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종교가 기독교인 집단에 비해 불교인 집단이 물질주의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임정(1988), 이명숙(1995)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주부들의 운명통제지향성에는 배경변인 중 무종교($\beta = -.14$)와 월평균 가계소득($\beta = .12$)이 영향을 미쳤다. 즉 주부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비해 종교가 없는 주부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은 많을수록 환경이나 자연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이나 자연을 통제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지향성에는 취업여부($\beta = .14$)가 영향을 미쳤다. 즉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성평등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지향성은 연령이 적을수록($\beta = -.22$), 학력이 낮을수록($\beta = -.17$),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beta = -.14$),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 = .15$)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고 학력이 낮으며, 건강하지 못할 경우와 자녀수가 많은 주부일수록 혁신지향성이 강해 정치나 사회제도의 잘못된 점 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을 급격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이 제례의식·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배경변인별 도시주부의 제례의식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제례의식에는 배경변인 중, 불교($\beta = .47$), 천주교($\beta = .21$), 무종교($\beta = .20$), 자녀수($\beta = .13$), 주부학력($\beta = -.14$), 며느리순위($\beta = -.11$)변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변량 중 25%를 설명하였다. 즉, 종교가 기독교에 비해 불교·천주교·무종교인 주부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제례의식은 전통적이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지닌 주부일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적이라는 것은 불교나 천주교, 무종교인 경우 어느 정도 유교식 전통의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표 4〉 가치지향성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질지향성		운명통제지향성		성평등지향성		혁신지향성	
		b	β	b	β	b	β	b	β		
주부연령		-	-	-	-	-	-	-	-	-.02	-.22*
주부학력		-.05	-.13*	-	-	-	-	-	-	-.05	-.17**
자녀수		-	-	-	-	-	-	-	-	.17	.15**
며느리순위		-	-	-	-	-	-	-	-	-	-
종교 (기준:기독교)	무종교	-	-	-.24	-.14*	-	-	-	-	-	-
	불교	.25	.13*	-	-	-	-	-	-	-	-
	천주교	-	-	-	-	-	-	-	-	-	-
월평균 가계소득		-	-	.05	.12*	-	-	-	-	-	-
취업여부(기준:취업)		-	-	-	-	.26	.14*	-	-	-	-
건강		-	-	-	-	-	-	-	-	-.15	-.14**
상수		3.13		3.27		2.69		4.69			
F비		.20*		2.15*		2.67*		2.67**			
R ²		.06		.06		.07		.07			

** P<.01 * P .05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적인 것은 선행연구결과(김인옥, 1989; 김명나, 1989)와 유사하다.

학력은 높을수록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결과(이길표, 1983; 김명나, 1989; 손유미, 1990; 이정우·김명나, 199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제례가 주부의 학력보다 시댁의 방식에 따라 전통의식으로 지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며느리의 순위는 만며느리나 종부에 비해 둘째 이하의 며느리인 경우 제례에 대해 근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부, 만며느리가 제례의식이 높게 나타난 김인옥(1997), 임옥재(1981), 박수정(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례의식은 학력이 높고, 주부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비해 불교나 천주교인 경우, 자녀수가 많으며 만며느리인 경우 제례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종교나 며느리의 위치에 따라 제례의식이 전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종교 교리에 따른 의례의식의 차이와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큰며느리, 종부는 조상에 대한 봉제사의 의

식이 높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도시주부의 제례수행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제례수행은 불교($\beta = .34$), 천주교($\beta = .21$), 취업여부($\beta = .11$) 등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투입변수들은 분산의 13%를 설명하였다. 즉, 종교가 기독교인 주부에 비해 불교, 천주교인 주부인 경우,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인 경우 제례수행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종교나 불교인 주부가 기독교인 주부보다 더욱 전통적인 행동을 보인 선행연구(박수정, 1989; 김명나, 1989)와 일치하였다. 또한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부부가 전통적 방식으로 제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가정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 제수준비 등에 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전통식의 제례를 준비할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5〉 배경변인이 제례의식·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의식		제례수행	
	b	β	b	β	b	β
주부의 연령	-	-	-	-	-	-
주부의 학력(기준:고졸)	-.05	-.14*	-	-	-	-
자녀수	.16	.13*	-	-	-	-
머느리순위(기준:말머느리)	-.19	-.11*	-	-	-	-
종교 (기준:기독교)	무종교	.42	.20***	-	-	-
	불교	.91	.47**	.61	.34***	
	천주교	.45	.21***	.41	.21***	
월평균 가계소득	-	-	-	-	-	-
취업여부(기준:취업)	-	-	.18	.11*		
건강	-	-	-	-	-	-
상수	2.87		2.99			
F비	10.56***		4.83***			
R ²	.25		.13			

*** P<.001 ** P<.01 * P<.05

3.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이 제례의식,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도시주부의 제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향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제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물질지향성($\beta = .25$)과 성평등지향성($\beta = -.12$)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변량 중 8%로 미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성평등지향성이 낮을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치지향성이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6〉과 같다. 그러나 제례수행에는 가치지향성이 설명하는 변량은 미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치지향성이 제례의식·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의식		제례수행	
	b	β	b	β	b	β
물질지향성	.26	.25*	.00	.00		
운명통제지향성	.01	.01	.08	.07		
성평등지향성	-.11	-.12***	-.07	-.08		
혁신지향성	-.03	-.03	.01	.01		
상수	2.37		3.12			
F비	8.07***		1.10			
R ²	.08		.01			

*** P<.001 * P<.05

4. 도시주부의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도시주부의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제례수행	
	제례의식	b	β
제례의식	.56	.58***	
상수	1.74		
F비	186.1***		
R ²	.34		

주부의 제례의식($\beta = .58$)은 제례수행에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변량의 34%를 설명하고 있다. 즉, 주부의 제례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실제 제례수행도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제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제례행동도 근대적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이길표, 1983; 박수정, 1989; 김명나, 1989)와 유사한 결과이다.

5. 도시주부의 배경변인, 가치지향성, 제례의식 및 제례수행간의 인과관계

이상의 중다회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각 독립변인이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을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는 <표 8>과 같다. 제례수행에 대한 배경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앞에서 분석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주부의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6개의 배경변인(8개의 변인 중 6개 변인)이 가치지향성이나 제례의식을 매개로 하여 제례수행에 직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모형의 적합함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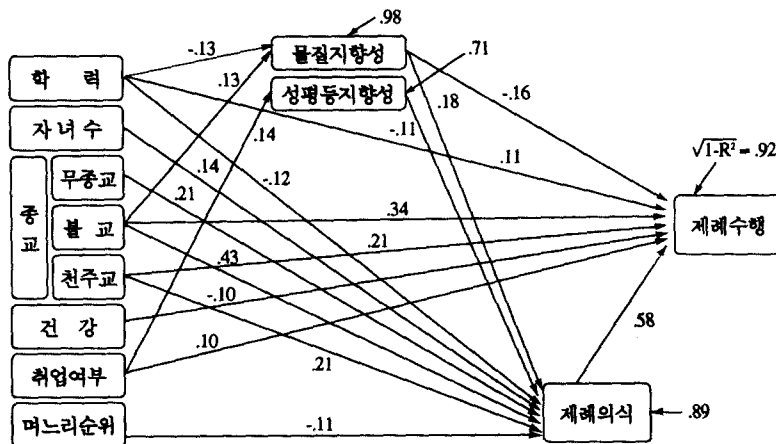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체적 효과를 살펴보면, 제례수행에는 제례의식, 불교, 며느리순위, 건강, 취업여부, 성평등지향성, 자녀수, 천주교, 무종교, 물질지향성, 주부학력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제례의식은 직접효과($\beta = .580$)를 보여 전체 인과효과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종교 중 천주교($\beta = .542$)와 불교($\beta = .507$)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중 제례수행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 불교, 천주교, 취업여부, 건강 등의 배경변인

과 가치지향성으로는 물질지향성, 성평등지향성 이었고 제례의식도 직접영향을 미쳤다.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학력 · 불교 · 종교(불교) · 취업여부는 제례수행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 가치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또는 가치지향성을 매개로 한 다음 제례의식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세 변인은 가치지향성과 제례의식을 매개로 하여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예측하기 위해 선정된 인과모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은 제례수행에 정적인 직접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질지향성을 매개로 제례수행에 미치는 경우, 그리고 물질지향성과 제례의식을 경유하여 제례수행에 간접효과도 있었다. 학력은 직 · 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제례수행은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물질지향성이 낮으며 제례의식은 전통적이고 제례수행도 전통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 성향만을 매개로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은 낮으며 제례수행은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그림 2> 인과모형



〈표 8〉 인과효과

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인과효과			
배경변인	주부학력	-.004	.11	물질지향성 경유: .021 물질지향성·제례의식 경유: -.014	.117	-.157	
	종교	무종교	-.028	-	제례의식 경유: .116	.116	-.088
		불교	.239	.34	물질지향성 경유: -.021 물질지향성·제례의식 경유: .014 제례의식 경유: .174	.507	-.268
		천주교	.045	.21	제례의식 경유: .122	.542	-.497
	자녀수	.084	-	제례의식 경유: .081	.081	.003	
	며느리순위	-.115	-	제례의식 경유: .064	.064	-.051	
	취업여부	.085	.10	성평등지향성·제례의식 경유: -.009	.091	-.006	
	건강	-.090	-.10	-	-.100	-.190	
가치 지향성	물질지향성	-.011	-.16	제례의식 경유: .104	-.056	-.045	
	성평등지향성	-.085	-	제례의식 경유: -.064	-.064	-.149	
제례의식	.583	.58	-	.58	.003		

* pearson's correlation 계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는 불교의 경우 물질지향성을 경유하여, 또는 물질지향성과 제례의식변인을 매개로 하여 제례수행에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집단인 주부일수록 물질지향성이 높으며 물질지향성이 높은 경우 제례수행은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가 불교인 주부가 물질지향성이 높지만 제례의식은 전통적이면 제례수행도 전통적임을 알 수 있다. 천주교 집단의 주부의 경우 불교 다음으로 제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천주교인 주부인 경우 제례수행수준이 기독교인 경우에 비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교나 천주교의 의례의식이 전통적인 제례의식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녀수는 제례의식을 매개로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적이며 제례수행도 전

통적으로 나타났다. 며느리 순위도 제례의식을 매개로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며느리의 순위는 만며느리에 비해 둘째 이하인 경우 제례의식이 근대적으로 나타났지만 제례수행은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둘째 이하 며느리는 제례의식은 근대적인 태도를 가질지라도 실제 수행에는 시택의 법도나 만동서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제례수행에 직접영향을 미쳤고, 또한 성평등지향성과 제례의식을 경유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전업주부들이 취업주부들보다 성평등 의식이 높지만 제례의식과 수행은 전통적이었다. 그리고 주부의 건강은 제례수행에 부적인 직접영향을 미쳤다. 즉 주부가 건강하지 못할수록 제례수행은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으로 먼저 가치지향성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물질지향성은 제례수행에 직접영향을 미치거

나 제례의식에 정적영향을 미치면서 이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제례수행이 근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례의식을 경유한 제례수행에 대한 간접효과로서는 물질지향성이 높아질수록 제례의식은 전통적이며 제례수행도 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치지향성 중 성평등지향성은 제례의식을 매개로 제례수행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에서 남녀간의 성평등지향적인 주부일수록 제례의식은 근대적인 반면 제례수행은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 의식이 있는 주부들의 경우 제례에 대해서는 근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제사준비와 제사형식 등에 있어서는 시대의 가풍이나 종교에 따라 관습적으로 지내기 때문에 생각된다. 의식은 과거에 비해 변화했지만 실제 수행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으로서 제례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례의식 변인은 배경변인(학력, 종교-천주교, 무종교, 불교-, 자녀수, 며느리순위 등)이 제례의식을 경유하여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배경변인이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가치지향성변인 물질지향성 다음 다시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제례수행에는 제례의식과 종교, 가치지향성이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제례의식은 제례수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사회에 적합한 제례수행을 위해서는 제례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대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제례의식의 고양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祭禮에 대한 주부의 의식과 수행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다음은 본 연구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은 혁신지향성과 운

명통제지향성은 중간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평등지향성, 물질지향성은 중간점 이하로 나타났다. 다음에서 제례의식은 근대적인 경향이나, 제례수행은 비교적 전통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도시주부의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제례의식·종교-천주교, 불교, 무종교·자녀수·며느리순위·취업여부·건강·가치지향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어 주부가 제례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선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물질주의 가치성향이 높고 낮음보다는 제례의식을 경유하는 경우 제례수행은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례의식이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력이 낮고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제례의식은 전통적이며 수행도 전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칫하면 의례의 과시풍조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례의 상품화, 상업주의화는 주문식 제사음식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를 공급하는 업체나 이용하는 주부의 편리성과 시간절약 등의 이유로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점차 상업주의화는 편의의 차원을 넘어 과시소비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10년 전 만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제사는 근래 도시의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휴가를 겸한 휴가지에서의 콘도 차례상, 제수음식분담, 종교단체에 의존, 시골가족 상경 등 제례의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번거롭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신세대들의 속성과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인한 시간부족, 그리고 가사노동의 상품화에 익숙한 주부들의 태도 때문에 제례음식 주문은 점차 증가하며, 제례의 간소화에 대한 욕구도 증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물질로서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기보다는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려는 올바른 제례문화운동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종교는 제례수행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종교가 불교 및 천주교인 경우 기독교인 경우에 비해 더 전통적으로 제례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고학력사회, 다양한 가족형태,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원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족간의 제례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형식은 간소화하면서도 제사의 기본의미는 살리며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만며느리일수록 제례의식이 전통적인 것은 봉제사(奉祭祀)는 전통사회에서 만며느리나 종부의 권리와 의무로 여겨졌던 것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사례연구를 겸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에 비해 성평등지향성이 높으며, 제례의식은 근대적이지만 실제수행은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제례관행에 대한 의식의 변용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제례는 다른 일상적인 일 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편리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관습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주부의 건강이 제례수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할수록 제례수행이 전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비교적 연령이 많은 주부들로 생각되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주부들은 조상 제사를 잘 지냄으로서 조상의 음덕(陰德)을 받을 것이라는 보본반시(報本飯匙)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볼 때 전통과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한 오늘날 주부들의 합리적인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의례는 사회문화의 소산이므로 올바른 가치관교육과 함께 의례의 기본정신을 살려 제례수행을 겸소하게 함으로서 신구세대의 갈등뿐 아니라 제례를 치르면서 주부개인의 제수준비시간, 제수마련비용, 형식, 역할분담 등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전통제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살려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과다지출을 줄이며,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알기 쉽게 누구나 실천하기 쉬운 제례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제례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다고 보는 제례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로 전통과 현실이 부합하는 실현성 있는 대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각 세대별, 남녀비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한민족과의 비교연구도 기대된다. 둘째, 제례는 효의 연장으로 우리 조상들은 생각해왔으므로 효의식과 제례를 연관 지은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고범서(1992). 가치관 연구, 서울: 도서출판 나남.
- 2) 고영진(1996). 조선중기여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 3) 구선옥(1992). 기혼여교사의 제례행동.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 4) 김광웅·정금자(1983).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22).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 5) 김득중(1998).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 6)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7) 김명자a(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24).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 8) 김명자b(1983). 제례를 보는 현대인의 시각. 전통문화 31.
- 9) 김시월(1996). 현대인의 관혼상제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건대. 생활문화예술(19).
- 10) _____(1997). 제사의 형태와 제사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건대. 생활문화예술(20).
- 11) 김연화·이정우(1987). 도시주부의 가치관과 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5(1). 231-251.
- 12)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 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박미금(1984).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4) 박수정(1988). 도시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5)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6) 박혜인(1999).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가족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17) 백경미 · 이기춘(1993).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영향이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 18) 서봉자(1981). 조상숭배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9) 손승영 (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한국여성사회연구회편. 사회문화연구소.
- 20) 옥선화(1989). 현대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1)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혼 · 제례를 중심으로 -.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22) _____ (1997). 전통혼례행례의 계승과 새로운 방안을 위한 모색. 바람직한 전통혼례 토론자료. 보건복지부. (사) 한국전례원.
- 23) _____ (1989).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상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1), 141-164.
- 24) 이상주 외(1985). 해방 40년-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25) 이정우(1979). 한국도시여성의 가치관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18).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39-65.
- 26) _____ (1980).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27) _____ (1980). 도시여성의 의식구조. 아세아여성연구(19).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147-170.
- 28) 이정우 외(1998). 생활문화와 예절.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29) _____ · 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 ·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결혼의식 · 제사 및 회갑연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8).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소. 23-50.
- 30) _____ · 박미금(1988). 도시 기혼여성의 가치관과 가정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논문집 제29집.
- 31) _____ · 박은아(1995).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치성향 ·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관리만족. 아세아여성연구(34),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65-100.
- 32) _____ · 오경희(1988).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지(2)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소. 27-57.
- 33) _____ · 이정숙 · 박미금(1998). 한국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2). 1-19.
- 34) 임옥재(1981). 제사에 대한 부녀자의 가치구조 조사연구. 아세아 여성연구(20).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35)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6) 임정빈(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37)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 집문당.
- 38) 조미환(199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한양대석사학위논문.
- 39) 한국정신문화원(1997). 朝鮮時代儀禮資料集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0) 한림과학원 편(1995). 전환기에 선 한국인의 가치관. 소화.
- 41) 한림과학원 편(1997).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소화.
- 42) 허성미 (1988).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 43)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44) _____ 황덕순(1995). 가정관리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의 분석: Schlater와 Sontag의 2차원 가치측정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 45) _____ · 황덕순(1996). 도시주부의 일반적인 가치경향과 가치유형-Rokeach의 가치측정항목사용-. 대한가정학회지 34(6). 81-98.
- 46)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7) 황원구(1981). 주자가례의 형성과 과정, 연세대 인문과학 총서 1. 현대사회와 예. 서울: 탐구당. 245-284.
- 48) 이재(李穡). 사례편람(四禮便覽)
- 49) 예기(禮記).
- 50) 주자가례 (朱子家禮).
- 51)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 52) Kluckhohn. F. R. & Others(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53) Melson. G. F.(1980), Family and Environment: An Ecosystem Perspective.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mpany. 108-133.
- 54)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Glencoe, IL: Free Press.5-22.
- 55) Williams. Jr, R. M. American Societ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rd. ed, N.Y: Alfred A Knopf. 1970. 440- 442.